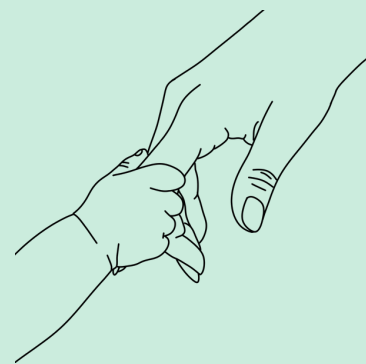


0-2세 보육교직원 학습공동체

꼬물꼬물



작은 손 큰 놀이

결과 보고서



가양7 어린이집 / 해다미 어린이집 / 해솔 어린이집

목 차

01 소 개 (구성원 / 주제 선정 이유 / 활동을 시작하며 기대했던 배움 혹은 변화)

02 운영 방식 및 과정 (운영방식 / 전개과정 / 주요조정 및 협의)

03 배움과 변화 및 핵심 성과 (나타난 관점, 배움과 변화 등 주요성과 / 사례 / 느낀점, 성찰)

04 향후 적용 및 확산계획 (현장 적용법 / 계획)



소 개



구성원

가양7 어린이집 (이0영 교사, 이0주 교사)
해다미 어린이집 (한0숙 교사, 홍0희 교사)
해솔 어린이집 (박0선 교사, 강0리 교사)

본 학습공동체는 0~1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 운영 전반에 있어 특정 역할에 국한되기보다 모든 구성원이 관찰자이자 연구자, 실천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각 차시마다 놀이 사례 공유, 기록 정리, 논의 정리 등을 자율적으로 맡으며 공동 책임의 구조로 운영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소 개

주제선정이유

놀이중심



비구조화??



놀이중심
배움지향

교사들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놀이(배움) 지원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구조화된 교구나 결과 중심 놀이에서 벗어나, 비구조화 놀잇감을 활용한 감각 놀이가 영아의 탐색과 표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였으며 이를 현장 맥락에서 탐구하고 보다 나은 배움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합의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활동을 시작하며 기대했던 배움 혹은 변화



활동을 시작하며 교사들은 놀이 방법을 늘리기보다,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교사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기대하였다. 더불어 놀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안전과 관련된 상황, 교사의 개입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 배움으로 이어나갈 놀이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혼자가 아닌 공동의 배움으로 함께 풀어가고자 하였다.

운영 방식 및 과정

학습공동체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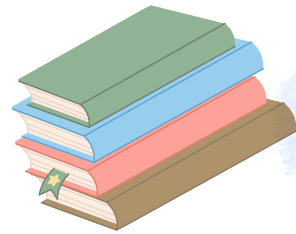
학습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차시별 주제와 운영 방향은 초반에 계획해둔 부분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매 회 더 나누고 싶은 놀이사례나 추가로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을 때 또는 협의가 될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여 다음 회기 초반에 나누는 등 **매 회기 재논의**를 통해 다음 번 모임 주제를 이야기 나누기도 하였다.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며, 비구조화 놀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시작으로 자연물, 재활용품, 빛을 활용한 감각 놀이로 점진적으로 주제를 확장하였다.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조정 및 협의

각 차시에서는 사전 계획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놀이 사례를 공유하고, 영아의 반응과 교사의 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분석 후에는 다음 놀이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며, **계획-실천-성찰이 순환되는 구조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은 영아 놀이의 안전성, 교사 개입의 정도, 놀이 지속 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특성, 배움으로서의 놀이 지원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정과 협의**를 거쳤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는 놀이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닌, 매체를 신중히 선택하고, **놀이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며 운영 방향을 조정해 나갔다.

운영 방식 및 과정



계획을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한 과정

1차 11/5

첫 만남
운영계획 수립 및 OT

- 공동체 운영주제, 운영형태와 방식 결정.
- 현장고민을 나누면서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감각적 놀이와 매체 활용 방안을 논함.
- 놀이 지원방향 모색, 역량을 강화하기로 함.

2차

컨설턴트와 함께...
비구조화 놀이의 이해 및 연구

- 비구조화 놀이의 이해(이론).
- 실질적 문제 해결방법 조언.
- 교사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전략을 피드백 받아 적용해보기로 함.

3차 12/4

비구조화 놀이 1 (자연물)
놀이 사례 나눔 및 고민 점검

-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의 기본 이해 및 놀이사례 나눔.
- 심층 토론 및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모색.
- 반영 사항 점검해 기록. →지원 역량 강화.

4차 12/23

비구조화 놀이 2 (재활용품)
놀이 사례 나눔 및 고민 점검

-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의 기본 이해 및 놀이사례 나눔.
- 배움 읽기/배움 지원 방법 나눔.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모색. →반영 협의.
- 발달적 참고 사항 재점검.

5차 1/8

비구조화 놀이 3 (빛)
놀이 사례 나눔 및 고민 점검

- 빛을 이용한 놀이의 기본 이해 및 놀이사례 나눔.
- 배움 읽기/배움 지원 방법 나눔.
- 과정 중심의 놀이→영아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절해야함을 성찰.

6차 1/21

컨설턴트와 함께...
놀이 돌아보기 및 점검
해결되지 않은 고민 조언

- 공동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궁금증에 대해 재토론.
- 교사들의 고민을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교사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 돌아보며 재적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

7차 1/28 ing

공동체 성찰과
성과 정리 및 실천 확장

-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 최종 점검하며 성찰하기
- 각자의 소감 나누기

배움과 변화 및 핵심성과

주요 성과

(활동을 통해 나타난 관점, 실천 상의 배움과 변화)

비구조화 감각놀이 = 영아의 발달 과정이 드러나는
의미 있는 놀이로 인식.

영아의 놀이를 보는 관점의 변화.

- 지속 시간이 짧거나 반복적인 탐색→ 발달적 특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놀이 과정으로 이해→ 감각을 정리
하고 배움으로 진행하는 과정.
- 놀이의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

교사 역할 성찰의 계기.

- 개입을 줄이고, 영아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절하는
역할→ 놀이 확장을 돕는 중요한 지원.
- 관찰한 부분을 토대로 배움 지원→ 놀이 지속 지원.

활동을 통해 느낀점이나 성찰

자연물, 재활용품, 빛을 활용한 놀이 사례 분석 과정에서
교사들은 개입을 줄이고 영아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놀
이 확장을 돕는 중요한 지원임을 성찰하였다.

또한 놀이를 ‘잘 이끌어야 하는 활동’이 아닌, 영아의 반응
을 읽고 조율하여 배움을 지원하는 전문적 실천 영역으로
재인식 하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성찰
은 교사 개인의 실천 변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본 학습공
동체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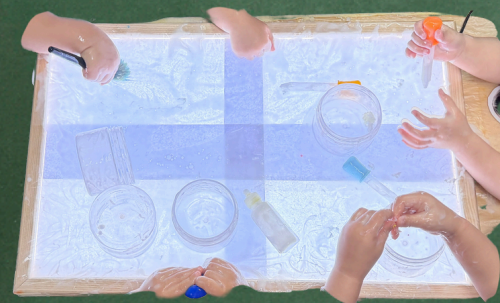
특히 정해진 사용법이 없는 재료인 비구조화 매체가 영아
의 자기주도적 탐색과 표현을 가장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다는 점을 공감하게 되었고, 놀이와 배움을 지원함에 있어
무엇을 우선으로 두어야 할지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배움과 변화 및 핵심성과



의미있었던 사례 및 활동

빛놀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 놀이 사례를 공유해본 뒤 원에 돌아와 실행해본 것이 라이트 테이블의 조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이었다. 자체적으로 조도 조절이 가능한 등이 없다면 유선 지나 흰종이, 셀로판지, 아세테이트지 등을 활용해보거나 놀이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해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물감놀이 시
물감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조도 조절



→ A4용지를
이용한 조도낮추기



흙 놀이 중 자연스럽게
조도조절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시 산책이나 바깥놀이하며 경험하는 직접적인 탐색에서 나아가 안과 밖의 이음으로 교실로 자연물을 자유롭게 가지고 와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과 흐름을 지원하였다. 분절된 놀이가 아닌 흐름과 배움이 지속되는 놀이를 위해 원하는 매체를 이용한 탐색들을 시도하도록 격려해주었다.



안과 밖의 이음
자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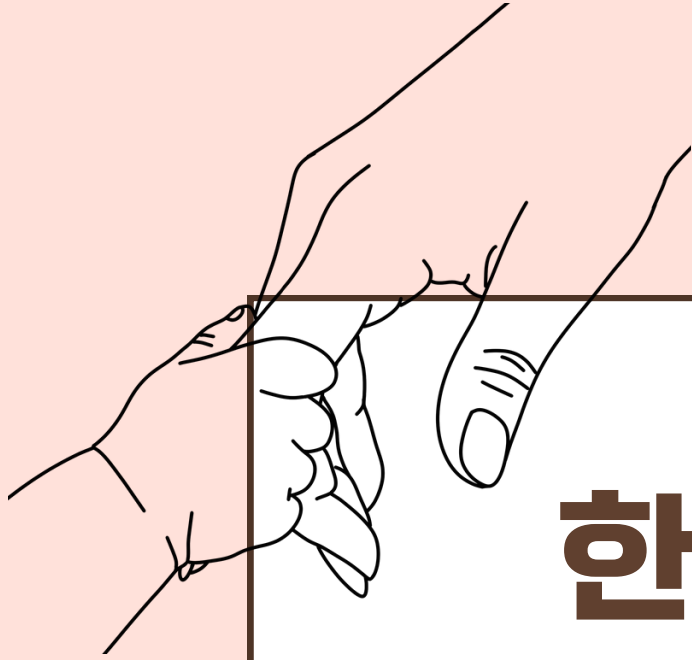
향후 적용 및 확산 계획

현장적용 예시 및 공유, 확산 방안

- ✓ 영아의 감각 발달과 주도성을 중심으로 비구조화 놀잇감을 활용한 감각 놀이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놀이 계획에서는 기존 놀이를 영아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며 탐색 과정 자체에 더 의미를 두기로 한다.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짧은 놀이와 제한된 반응 또한 발달 과정으로 해석하여 다음 놀이로 연결하는 순환적 운영을 계획해 보기로 한다.

- ✓ 감각 놀이 시 교사 역할을 재정립하여, 개입과 설명을 줄이고 영아의 미세한 반응을 관찰·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놀이를 관찰/기록-배움읽기를 통해 다음 놀이에 영아의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놀이를 연계해 나가기)
- ✓ 비구조화 놀잇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아가 익숙한 놀이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 역시 반복 관찰을 통해 놀이 이해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학습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배움과 변화는 이후 현장 놀이 운영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비구조화 놀잇감을 일회성 활동으로 제공하기보다, 일상적인 보육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영아의 반응을 관찰하고 다음 놀이로 연결하는 순환적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학습공동체에서 축적된 놀이 사례와 성찰 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고, 원 내 연수나 소규모 나눔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교사들이 함께 질문하고 성찰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영아 놀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원하는 교사 전문성의 성장을 이어가고자 한다.



고물고물 작은 손 큰 놀이

한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